

강서구의회 의원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최세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42
----------	---------

발의연월일 : 2023년 3월 6일

발의자 : 최세진, 고찬양, 홍재희,
강선영, 박성호, 김성한,
박주선, 최동철, 한상욱,
조기만

1. 의결주문

「강서구의회 의원 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강서구의회 김민석 구의원은 지난 2월 24일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강서구의회의 의정공백을 야기함.
- 나. 향후 21개월간 사회복지무로 인해 57만 강서구민의 민생을 살피는 구의회의
의정공백이 불가피함에 따라 의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김민석 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함.

3. 결의안: 붙임

강서구의회 의원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지난 2월 24일,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사회복지요원으로 소집되어 57만 강서구민의 민생을 뒤로한 채 자신의 병역대체복무를 시작하였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임기 중 병역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민석 의원은 사회복지요원 소집 당일까지 동료 의원들은 물론, 의회사무국과 구민들에게 자신의 사회복지소집 통보 사실을 숨겨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김민석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원명예를 실추하고, 의정공백을 야기한 책임이 있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민석 의원은 병역의무와 관련한 이기적인 행태에서 초래된 의정공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은 임기 동안 주민들을 대표하므로 군복무 문제는 의원직에 앞서 필수적으로 선결하고 출마했어야 한다. 그러나 김민석 의원은 임기 중 만 30세가 도래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구의원에 출마하였다.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는 김민석 의원 자신의 이기적인 행태에서 초래된 것이다. 병무청은 김민석 의원에게 2월 22일, 23일 일관되게 검직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언론을 통해 수년째 병무청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오히려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병역대체복무 이행과 검직이 불가하다

는 것을 강서구민과 강서구의회에 조속히 알려 의정공백을 최소화 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민석 의원의 많은 언론보도와 해명 속에는 구민을 향한 충정과 사과는 물론, 의정공백을 최소화 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둘째, 김민석 의원은 2030 청년들에게 매우 큰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병무청에서 허용하는 겸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등 지극히 한정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당사자와는 무관한 사실이다. 김 의원 자신은 병무청의 겸직 불가 판단에 대해 청년들의 정치 기회를 축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역법상 만 30세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이며, 병역이행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만 30세 미만의 청년정치인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있을 뿐, 만 30세가 넘는 김민석 의원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기습적으로 사회복무를 함으로써 발생한 공백을 마치 2030 청년정치인의 대변인처럼 행세하며 입법미비라는 허울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김민석 의원이 청년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하여 본인의 겸직을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병역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의원직을 즉시 사퇴하는 것이 청년을 대변하는 것이다.

셋째, 김민석 의원은 기초의회 무용론에 불을 지피 강서구의회를 명예를 실추했다. 김 의원은 낮에는 사회복지요원 활동을, 저녁에는 주민 의견청취와 정책개발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투잡을 펼 만큼 구의원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낮과 밤,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사항 또한 구민을 위한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참해도 되는 것처럼 이를 대수롭지 않게 폄하 하였다. 김 의원의 다소 황당한 주장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된 것에 스스로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넷째, 김민석 의원은 고소를 남발하며 본인의 문제를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으로 비화시키고 있다. 탈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역대체복무로 인한 의정공백의 우려에 대해 논평한 야당 관계자들을 모두 고소하면서 개인 신변의 문제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쟁과 양당 갈등으로 비화돼 강서구의회 의정에 큰 차질을 초래 할 수 있으며,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57만 강서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의정공백을 최소화하여 흔들림 없이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정공백’을 자초한 김민석 구의원은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나, 김민석 구의원은 강서구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석고대죄 하라!

하나, 여야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무분별한 고소를 철회하고 사회복무에 충실하라!

2023. 3.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